



사랑학교
게리 토마스 /
윤종석 옮김 / CUP

이성교제를 시작하며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여자친구만 생기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고민으로 지새운 날들이 적지 않다. “사랑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학교』를 읽으며 내 모습을 반성해보기도 했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나름의 정의를 내려 보기도 했다.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바른 실천은 잘 안되지만, 그럼에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사랑을 배우는 인생학교

결혼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다. 다만 인간의 죄와 이기성은 복된 연합을 마라의 쓴 물로 바꾸어 버린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결혼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지 어렵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인가?”로 말이다. 참된 사랑은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며, 나의 유익보다는 배우자의 축복을 우선순위에 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친밀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 결혼의 목적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게리 토마스는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외모, 경제력, 학벌)의 힘 앞에서 영적 사명은 뒤로 밀려나기 쉽다. 결혼에 대한 바른 렌즈를 갖는 데 『사랑학교』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둘째, 가정생활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랑학교』는 부부의 연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정한 개선을 원하는 부부에게 『사랑학교』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사이의 관계 역시 위태로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부부사이의 관계도 가까워진다는 것이 결혼의 신비이다.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도록 하는 넓은 안목을 『사랑학교』는 제공하고 있다.

책 속의 한 줄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 땅의 많은 친구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서지는 광선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태양이다. 그들은 실개천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수원이시다. 그들은 물 한 방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다이다. - 조나단 에드워드 - p.58